

회계생태계의 구조와 활성화 방안*

이 창 우**

황 성 식***

.....

아직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회계에 기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공감대가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실무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사회전반적으로 회계마인드가 부족하면 사회 전체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은 회계실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충격은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내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공유가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기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로, 회계 중시의 관습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회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구성원의 마음에 자리잡는 마음점유율(Mind Share)을 키우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로, 회계기준이 한국의 자본시장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적 눈높이에 맞춘 IFRS를 준비 없이 무방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많은 부담과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최근 발표된 IFRS 기준서, 특히 보험회계기준서인 IFRS 17의 경우 등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

셋째로, 회계정보의 실질적 유용성과 활용편의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실질적 유용성과 활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생성측면과 이용측면 모두에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되어야 한다. ICT의 지속적 발전은 회계생태계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고, 자본시장을 보다 더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회계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회계생태계의 운영 역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회계생태계의 수준 또한 이를 운영하는 인력의 수준에 달려있게 된다. 국가차원의 회계인재육성체계의 밑그림이 만들어지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회계생태계 주체 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회계지식과 역량 수준별로 국가 및 민간자격증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회계법인을 포함한 제반 경제주체 내에서의 회계전문가 경력경로 단계별 회계교육, 분식회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윤리성과 정신적 독립성 함양에 대한 교육,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사회지도층에 필요한 회계마인드 교육 등 큰 밑그림하에서 체계적인 회계인재가 육성되어야 한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AIST 대우교수

I. 머리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규모가 5조 원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엔론의 분식규모가 약 15억 달러 수준이라 할 때, 그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미국의 경우 엔론 사건으로 무너진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Sarbanes Oxley Act를 제정하여 내부회계통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경영자의 책임과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며 PCAOB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대대적인 회계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약 1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회계제도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자본 시장이 다시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회적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취약한 회계생태계’로 대별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회계정보 이해관계자 간의 책임과 권한이 균형 배분되지 못한 현실을 의미한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지난 1월 초에 외감법 전면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감독기관에서 회계제도개혁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7)이 제시되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김갑순, 2017)이 진행 중이다. 외부감사의 수임제도 개선과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여, 기업 측면, 외부감사인 측면, 감독기관 측면에서 여러 제도개선 대안들(한국회계학회, 2016)이 논의되고 있다.

‘취약한 회계생태계’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속가능한 회계투명성을 유지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회계생태계의 취약한 현실을 의미한다. 아직도 회계업무는 회계 전문가들끼리 알아서 풀어나가는 규제적 사안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K-IFRS의 도입으로 회계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회계이슈는 더욱 회계전문가의 ‘그들만의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회계는 원칙을 지켜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인식보다는,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 규제의 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경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식도 큰 범죄는 아니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회계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여러 경제적 절벽현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한계기업 정리와 구조조정 등의 현실 앞에 분식회계와 같은 독버섯이 언제든 다시 자라날 수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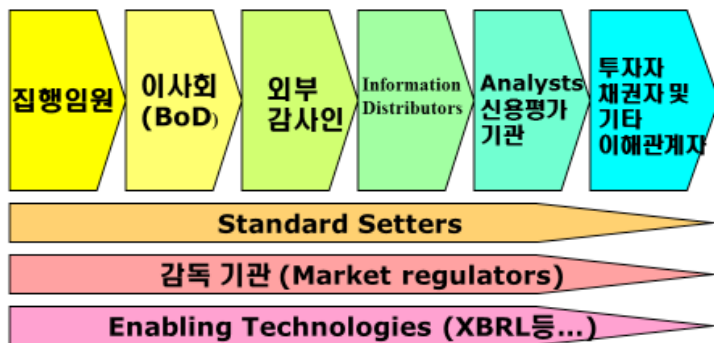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이 회복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회계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글에서는 자본시장의 회계정보흐름체계를 대상으로 한 회계생태계의 구조를 먼저 정리해 보고, 취약한 회계생태계를 건강하게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회계생태계 구조

회계생태계의 구조는 목적과 범위에 따라 여러 다른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정보의 생성과 활용 흐름체계를 대상으로 한 회계생태계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DiPiazza and Eccles, 2002).

일반적으로 생태계의 구조는 크게 먹이사슬과 서식지로 구분된다. 위의 그림에서, 윗부분이 회계정보의 생성과 활용의 공급사슬 구조이며, 아랫부분이 공급사슬의 활동에 대한 공통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식지 구조이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소비자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창출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경영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에 대한 회계정보의 생성과 공급의 역할을 한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을 위하여 집행임원이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이다.



출처: “Building Public Trust”, PwC

<그림 1> 회계생태계 구조

이사회는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의 전략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임원의 경영활동을 감독하며(COSO, 2013), 집행임원이 경영활동의 결과로 작성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보다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활용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재확인 역할을 한다.

외부감사인인은 기업이 작성한 회계정보에 대한 제3자적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확신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의 적용에 근거한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이다.

정보의 수집배부자는 합리적 확신이 확보된 회계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배부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제도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 DART와 KIND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분석가와 신용평가기관은 특정 회사에 대한 회계정보와 기타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와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투자자와 채권자는 특정 회사에 대하여 기업분석가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와 기타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여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회계생태계에 적용되는 주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GAAP)과 감사기준(GAAS)이 있다. 기준제정자로, 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국제감사기준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

감독기관으로 자본시장의 운영에 적용되는 게임 룰인 제반 규제적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 등에서 정하고 감독하고 있다.

자본시장 회계정보의 생성과 수집 및 배부, 분석 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XBRL이 기업보고의 전자문서표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III. 회계생태계 활성화 방안

회계생태계가 건강한 서식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로, 올바른 회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의지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회계에 기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공감대가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실무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사회전반적으로 회계마인드가 부족하면 사회 전체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은 회계실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충격은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내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공유가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기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계 중시의 관습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회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구성원의 마음에 자리잡는 마음점유율(Mind Share)을 키우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사회지도층, 특히 영향력이 큰 정치권과 법조계 및 언론계에 대한 회계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 회계교육은 부기원리나 IFRS의 내용을 가르치는 지식교육이 아니라, 회계기반의사결정의 필요성, 분식회계의 사회적 비용과 예방 필요성 등에 대한 회계마인드 제고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회계기준이 한국의 자본시장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K-IFRS 적용 5년을 평가해 보면, 회계정보의 국제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는 등 여러 긍정적 평가가 많으면서도, 결과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회계기준위원회, 2016). 또한 국제적 눈높이에 맞춘 IFRS를 준비 없이 무방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많은 부담과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최근 발표된 IFRS 기준서, 특히 보험회계기준서인 IFRS 17의 경우 등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 미국의 FASB가 IFRS를 전면 도입하지 않는 이유도 미국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는 최적화된 회계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US GAAP이 필요하다(Golden, 2017)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K-IFRS의 순기능적 역할을 위해서, 국제적 수준과 다른 한국 고유의 법규 및 규제환경, 사회제도, 상관습 및 사회적 인식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회계실무요구와 IFRS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회계기준위원회, 2017). 이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쌍방향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즉, 한국의 회계실무요구가 IFRS의 내용 속에 사전적으로 수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동시에 IFRS가 확정된 이후에는 원칙기반으로 정의된 IFRS에 대하여 한국 회계실무요구를 고려한 해석과 적용의 대안이 심도 있게 연구개발 되어야 한다. 쌍방향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계실무요구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폭넓게 수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셋째로, 회계정보의 실질적 유용성과 활용편의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회계정보가 의사결정에 실질적 유용성을 더해 주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공시정보 차원의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다 의미 있는 분석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의사결정 유형별로 분석과정을 거친 고부가가치화된 분석정보가 제공될수록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을 보장받고자 하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필요한 회계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회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취득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면 회계정보 활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회계정보의 실질적 유용성과 활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생성측면과 이용측면 모두에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되어야 한다. ICT의 지속적 발전은 회계생태계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고, 자본시장을 보다 더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기업보고의 전자문서표준인 XBR의 역할이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시스템에서도 XBRL 표준이 적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공시정보가 표준화되어 축적되고 있어서 회계정보의 균질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양질의 회계 빅데이터를 형성하여 회계분야의 수준 높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개발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다(사단법인 한국XBRL본부, 2017). 이를 통하여 향후 기업 내의 기간별 비교와 추세분석, 기업 간 비교 등을 용이하게 해줄 뿐 아니라, 부실 징후, 분식회계 징후, 그리고 더 나아가 사업구조조정과 산업구조조정 및 한계기업정리 등 회계정보 이용자의 분석과 의사결정의 효과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편, ICT의 발전은 회계감사 방법론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샘플링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모든 거래를 전수 감사하고, 회계처리 시 실시간 동시감사가 가능해질 것이며, 분식회계 징후를 찾기 위하여 AI 수준으로 발전된 감사소프트웨어의 활용이 확대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회계생태계 변화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회계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회계생태계의 운영 역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회계생태계의 수준 또한 이를 운영하는 인력의 수준에 달려있게 된다. 회계생태계의 건강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인재는 부기와 회계원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현상을 회계적 사고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어야 하고, 더 나아가 회계가 추구하는 가치인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윤리적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IAESB of IFAC, 2015).

회계기반사회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회계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지식과 역량 및 윤리적 덕목을 종합한 회계인재상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회계인재육성체계의 밑그림이 만들어지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회계생태계 주체 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단계별 경제교육에 회계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회계지식 수준별로 구분하여 대학에서의 교양필수 과목 및 전공과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회계지식과 역량 수준별로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회계법인을 포함한 제반 경제주체 내에서의 회계전문가 경력경로 단계별 회계교육, 분식회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윤리성과 정신적 독립성 함양에 대한 교육,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사회지도층에 필요한 회계마인드 교육 등 큰 밑그림 하에서 체계적인 회계인재가 육성되어야 한다.

IV.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고찰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하고 공청회를 실시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회사의 입장에서 분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내부감사의 통제를 강화하고, 회사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외부감사인의 경우에는 감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직권지정제의 확대를 포함한 감사인 선임제도의 개선, 핵심감사제의 도입, 적정감사투입시간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감독 당국의 경우에는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제도의 실시, 감리인원과 권한 강화, 그리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금융위원회, 2017). 여기에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술하고자 한다.

1. 내부감사의 통제강화

이는 내부감사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감사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내부감사의 실질적 견제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사실 그동안 기업의 내부감사 역할이 여러 한

경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내부 감사의 통제를 강화하는 안이 명문화되어 실행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의 감시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실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은 명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매우 엄하게 하여 그 보고대상을 주주와 이사회로 하고 있으나¹⁾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기업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또한 보고서의 명칭도 ‘검토보고서’라 하여 외국의 경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중요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격상되고 주주에 대한 보고가 요구된다면 재무보고의 신뢰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감사인 선임제도의 개선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사이에서 주로 자유수임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오던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하여 직권지정제와 선택지정제의 도입 등 지정제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 갑이 되고 외부감사인이 을이 되는 갑을관계의 회복을 통해 독립적인 감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재무보고의 신뢰성이 제고된다면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감사인 지정제가 확대된다면 피감사회사의 입장에서는 감사보수의 증가 등 비용부담이 늘게 될 것이고 외부감사인의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낮추게 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1)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

4. 핵심감사제의 도입확대

핵심감사제의 근본 취지는 기업의 활동에서 주주와 투자자들이 특별히 유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감사내용을 보강하여 감사보고서의 내실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건설수주산업부터 적용하는 등 이미 도입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여러 산업별로 위험요인들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감사내용이 공시된다면 재무정보의 신뢰성은 반드시 제고될 것이다.

5. 적정감사투입시간 규정

적정감사투입시간 규정이란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품질의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율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감사시간 투입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감사품질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감사를 하게 하고, 전체 감사투입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효과로는 감사보수의 현실화를 들 수 있다. 즉, 어느 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투입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적정수준의 감사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전적으로 규정한 감사투입시간은 오히려 효과적인 감사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며 감사보수 문제 또한 오히려 제한적으로 논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감사인의 감사보수 수준은 외국보다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낮은 감사보수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회계법인 간의 출혈경쟁임을 또한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감사위험이 높다거나 제공하려는 감사품질에 상응하는 감사보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감사수주를 위해 경쟁을 과열되게 하고 있는 회계감사 산업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감사인 등록제의 도입과 감사인원/권한 강화

감독 당국은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를 반영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감독 당국의 실무인력을 증원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여 감리주기를 기존의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 형벌강화, 몰수, 추징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

7. 회계감독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 당국의 회계감독 관련 인력과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자료와 같이 감독 당국의 인력과 권한을 확충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만드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우리나라 회계감독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회계관련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으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 경영진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을 통해 그 합리성을 검증하고 그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에서 추후에 시간이 흘러 그 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라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사후적으로 감리를 실시하는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외부감사인은 부실감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면,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7인으로 구성된 증권선물위원회에는 회계전문가가 단 한 명만 있는 것이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가 회계를 포함하여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법조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 분쟁의 시작과 결론이 회계적인 측면에서 정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회전반의 수준에서 회계에 대한 이해와 그 전문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회계문제에 대해 감독 당국은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최종판단은 7인 위원 중의 한 명인 회계전문가가 주도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매우 불합리한 사항은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나설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V. 맺음말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국가전략에 기반한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과 더불어, 자본의 배분과 흐름이 왜곡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사회가 실현되어야 하고, 회계기반 기업경영과 회계기반 경제 및 회계기반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정보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회계제도의 개선을 넘어서 회계생태계가 총체적으로 긍정적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상생 서식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계를 중시하는 관습과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회계마인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K-IFRS가 한국 자본시장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으로 회계실무 요구가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고, 회계정보의 실질적 유용성과 활용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발전된 ICT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회계인재 육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2017. 3. 17.),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7. 1. 20.),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 김갑순(2017. 2. 10.),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사단법인 한국XBRL본부(2017. 2. 13.), 「FY2017 사업계획」.
- 한국회계학회(2016. 12.),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
- 회계기준위원회(2016. 12. 6.), 「IFRS 도입 5년 성과와 과제 - IFRS 도입 5년을 돌아보며 나아가 갈 길을 탐색하다」(KAI 자료 16-04).
- 회계기준위원회(2017. 1. 17.), 「IFRS 도입 5년의 교훈과 향후 추진과제 - IFRS 정착을 위한 향후 5년의 과제는 무엇인가?」(KAI 자료 17-02).
-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2013. 5.), “2013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 DiPiazza Jr., Samuel A. and Robert G. Eccles (2002), *Building Public Trust: The Future of Corporate*

Reporting, John Wiley & Sons.

Golden, Russell G. (FASB Chairman) (2017. 1. 17.), “IFRS in Korea: Lessons Learned and Challenges It Faces for the Next Five Years” (Keynote Remarks).

IAESB(International Accounting Education Standard Board) of IFAC (2015), “Framework for International Education Standards”.